

채용박람회 참가해보니...!취업 호기...인디애나서 왔어요'

구직 한인 대학생 김주은 양

"좋은 취업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"

글로벌 아시안 채용 박람회를 위해 LA 를 찾은 김주은(24.사진)양.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블루밍턴에서 경제학을 전공 졸업후 취업 기회를 찾고 있다.

김 양은 "마침 LA 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하다가 채용 박람회 소식을 듣게 됐다"며 "박람회 참가를 위해 5 일 LA 에 도착했다"고 말했다.

친구들 3 명과 함께 박람회를 참석 각자 돌아다니며 관심있는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.

김 양은 오전 중 뉴욕 라이프 프루덴셜 워싱턴 뮤추얼 등 금융관련 기업 위주로 인터뷰를 봤다.

"전공도 경제학이었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였죠. 그래서 오전에는 금융업계 위주로 인터뷰를 봤죠."

김 양은 "이번 박람회가 좋은 기회가 됐다"고 전했다.

특히 미국에서 한인 및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채용 박람회를 찾기 힘들었는데 '글로벌 아시안 채용 박람회'가 희소식이었다고 덧붙였다.

"아무래도 정서가 비슷한 한국 기업 및 한인들과 인터뷰를 해 다소 편하게 면접을 할 수 있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과 취업희망자들이 참가해 행사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."

서기원 기자

중앙일보 2008. 06. 08 (일요일)

